

<2019. 2. 23 시행 서울시 7급 공무원 문항 분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선사시대				
고대	18, 19		8	
중세	6, 10, 20	4		
근세	3		13	14
근대대동기	12			5, 15
근대개항기	1	17		
일제강점기	2			16
현대	7, 9, 11			

< 총 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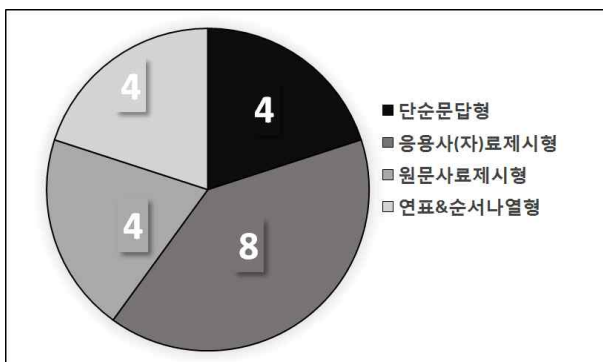
2019년 서울시 7급 한국사는 기존의 서울시 7급 시험과는 달리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작년 상반기에 치렀던 서울시 7급과 비교하면 매우 평이한 편이었으며, 하반기에 치렀던 서울시 7급과 비교하면 난이도가 비슷하지만 약간 더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다. 문항 유형은 **단순문답형 문제가 4개**, 자료제시형이 8문제, 원문사료형이 4문제, **순서나열형은 4문제**였다. **단순문답형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 자료·사료 제시형과 순서나열형 문제가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시대사로는 **근현대사에서 7문제** 출제되었으며, **선사시대는 출제되지 않았다**. 전근대사에서는 고대사 3문제, 중세사 4문제, 근세사 3문제, 근대 태동기 3문제로 골고루 출제되었다. 근현대사에서는 **현대사가 3문제 출제**되었는데, 지난 하반기 7급 시험에서도 현대사가 4문제 출제된 만큼 **현대사의 비중이 많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분류사로는 **정치사가 12문제, 경제·사회사와 문화사가 각각 4문제씩 출제**되었다. 지난 하반기 서울시 7급 시험 때도 경제·사회사가 6문제 출제되었는데, 이번에도 4문제가 출제되면서 비중을 어느 정도 차지한 데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사의 비중은 많이 줄어들었다**.

이번 시험에서 변별력 있는 문항은 3개 정도 출제되었다. 이중 고난도 문항으로는 조선시대 회화작품의 순서를 물어본 5번이 있었으며, 1910년대 일제통치를 물어본 2번 문제와 고려 말 왜구에 대해 물어본 6번 문제도 변별력을 갖추고 있던 문제였다.

<출제 문항 유형 분석>



< 출제 문항 주제 분석 >

문항 번호	출제 분류	출제 주제	난이도
1	근대 정치	동학 농민 운동	중하
2	일제 정치	1910년대 일제 통치	상
3	근세 정치	조선 전기 정치	중
4	중세 경제	고려의 토지제도	중하
5	근대기 문화	조선시대의 회화 작품들	상
6	중세 정치	고려 말 왜구	중상
7	현대 정치	통일 정부 수립 과정	중
8	고대 사회	신라의 사회	중하
9	현대 정치	대한민국 헌법 개헌 과정	중
10	중세 정치	고려의 대외관계	하
11	현대 정치	4·19 혁명	중하
12	근대기 정치	숙종 대 정치동향	중
13	근세 사회	조선시대 노비	중상
14	근세 문화	이이	중
15	근대기 문화	박지원과 정약용	중
16	일제 강점기 문화	박은식	중
17	근대 경제	일제의 경제 침탈	중
18	고대 정치	고구려-수나라 전쟁	하
19	고대 정치	발해	중하
20	중세 정치	공민왕	하

< 고난도 문항 분석 >

문항 번호	출제 주제	특징
5	조선시대 회화작품	조선시대 회화작품을 순서대로 물어본 문제로, 순서나열형 문제에서는 출제되지 않았던 유형이다. 선지 역시 2011년에 딱 한번 등장했던 '동궐도'와 지금까지 거의 등장하지 않던 장승업의 작품을 제시하여 난이도를 제법 높인 문제였다.

< 변별력 있는 문항 분석 >

문항 번호	출제 주제	특징
2	1910년대 일제통치	1910년대 일제 통치는 빈출 주제이지만, 선지의 내용이 그리 쉽지는 않았다. 일본이 자국과 조선에 법령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조선'이라는 명칭이 국가명이었는지 지역명이었는지를 구분하는 등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선지로 구성되어 변별력을 다소 높인 것이 특징이다.
6	고려 말 왜구	고려 말 왜구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물어본 문제였다. 왜구와 관련된 내용은 주로 고려의 대응을 물어보는 형태로 가끔씩 등장하였지만, 왜구의 구체적 활동·특징·고려의 대응까지 모두 물어본 문제는 사실상 처음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있어야 정답에 접근하기 수월했던 문제였다.

정답(A책형 기준)

- | | | | | |
|-------|-------|-------|-------|-------|
| 1. ② | 2. ① | 3. ① | 4. ① | 5. ③ |
| 6. ④ | 7. ③ | 8. ① | 9. ③ | 10. ③ |
| 11. ② | 12. ② | 13. ④ | 14. ② | 15. ② |
| 16. ④ | 17. ③ | 18. ② | 19. ④ | 20. ④ |

1. 동학 농민 운동

정답 : ②

제시된 자료는 동학 농민 운동을 일으켰던 전봉준 심문과 관련된 내용이다. ㉠ 동학 농민군은 1894년 5월에 조선 정부와 전주 화약을 체결하여 정치 개혁을 위한 폐정개혁안 12개 조를 제시하였고 전라도 일대에 집강소를 설치하여 자치 개혁에 나섰다. ㉡ 일본이 경복궁을 침범하고 청일전쟁을 일으키자 동학 농민군은 1894년 10월에 2차 농민 봉기를 일으켰으나 11월에 벌어진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대패하고 말았다.

오답 분석 : ㉠ 해당 내용은 1차 농민 봉기에 대한 설명이지만, 남·북쪽의 연합은 2차 농민 봉기에 해당되는 설명이다. ㉡ 밀줄친 내용은 일본군이 1894년 6월에 경복궁을 무단 침범한 것에 대한 설이다. 을미사변은 1895년에 일어났다.

(2019년 해법국가 2권 동학 농민 운동 644~648쪽)
(2019년 필기노트 동학 농민 운동의 전개 125쪽)

2. 1910년대 일제 통치

정답 : ①

① 일제는 조선을 통치할 때 조선의 수준이 일본보다 낮다는 핑계를 들어 차별적으로 통치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의 헌법과 법률을 그대로 조선에 적용하지 않고 체계를 달리 하여 적용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총독의 명령으로 특별 발표되는 ‘제령(制令)’이라는 것이 있었다.

오답 분석 : ② 일제는 대한제국을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강등시켰는데, 이때 조선은 국명이 아니라 일본의 지명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③ 조선총독은 일본 천황에 직속되었으며, 한반도의 입법·사법·행정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④ 일본은 1910년에 범죄 측결례를 적용하여 한국인이 저지른 범죄는 법적 절차나 재판 없이 즉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9년 해법국가 2권 1910년대 무단 통치 751쪽)
(2019년 필기노트 식민 통치 체제의 구축 141쪽)

3. 조선 전기 정치

정답 : ①

(가)는 1555년 명종 때 일어난 을묘왜변이고, (나)는 1592년 선조 때 일어난 임진왜란이다. ① 정여립 모반사건은 1589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동·서인의 분당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었다.

오답 분석 : ② 삼포왜란은 1510년 중종 때 일어났다. ③ 임진왜란 이후인 광해군 때의 사실이다. ④ ‘훈몽자회’는 1527년 중종 때 최세진이 지은 한자 학습서이다.

(2019년 해법국가 1권 봉당 정치의 전개 365쪽 / 광해군 366쪽 / 조선과 일본의 관계-임진왜란 371쪽)
(2019년 필기노트 17세기 정치-조선의 대외 관계 74~76쪽 민족문화의 융성 85쪽)

4. 고려의 토지제도

정답 : ①

순서대로 A는 공음전, B는 한인전, C는 군인전, D는 내장전, E는 사원전이다. ㉠ 고려시대에서 하급 관료 또는 군인이 사망시 그 유가족에게 생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급했던 토지는 구분전이다. ㉡ 국가에서 중앙과 지방 관청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지급한 토지는 공해전이다.

오답 분석 : ‘민전’이란 일반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이다. ‘군인전’은 군인들에게 지급한 토지이다. ‘한인전’이란 하급 관리의 자제를 중 관직에 오르지 못한 자들에게 지급된 토지이다. ‘내장전’이란 왕실이 직접 경영을 하던 토지였다.

(2019년 해법국가 1권 고려 토지의 종류 260쪽)
(2019년 필기노트 토지의 종류 53쪽)

5. 조선시대의 그림들

정답 : ③

㉠ 안견이 그린 ‘몽유도원도’는 15세기 회화를 대표하는 그림이다. ㉡ 정선의 ‘금강전도’는 진경산수화를 대표하는 그림으로, 18세기(1734년) 영조 때 그려졌다. ㉢ 19세기에는 서울의 궁궐과 도시의 번영을 그린 작품들이 그려졌는데, 그 중 하나인 ‘동궐도’는 순조 때인 1828~1830년 사이에 그려진 것으로 보고있다. ㉣ 장승업은 19세기 후반에 활동한 화원 출신 화가로, ‘삼인문년도’ 역시 19세기 후반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9년 해법국가 1권 조선 전기 그림과 글씨 447~448쪽 / 조선 후기 회화 579~581쪽)
(2019년 필기노트 조선 전기 그림 88쪽 / 조선 후기 회화 115쪽)

6. 고려 말 왜구

정답 : ④

④ 고려 말기에 발흥한 왜구들은 중앙 막부의 통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지방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한 세력이기 때문에, 막부의 통제를 받았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오답 분석 : ①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최영, 이성계와 같은 무장 세력들이 명성을 얻었다. ② 고려는 1377년 우왕 때 최무선이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왜구의 침입을 격퇴하였다. ③ 왜구들은 단순히 연해만 침공하지 않고 내륙 깊숙이도 침략하여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다. 한편 이를 막아낸 대표적인 전투로 최영의 홍산 대첩(부여), 이성계의 황산 대첩(지리산 부근) 등이 있다.

(2019년 해법국가 1권 흥건적과 왜구의 격퇴 240쪽)
(2019년 필기노트 고려의 대외 관계(흥건적과 왜구) 51쪽)

7. 통일 정부 수립 과정

정답 : ③

(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은 1946년 6월에 일어났다. (가) 좌·우 합작 7원칙은 1946년 10월에 발표되었다. (라)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1946년 12월에 구성되었다. (마) 제2차 마·소 공동 위원회는 1947년 5월에 재개되었다. (나) 여운형의 암살은 1947년 7월에 일어났다.

(2019년 해법국가 2권 좌우 대립과 좌우 합작 운동-단독 정부 수립 반대 운동 879~883쪽)
(2019년 필기노트 광복과 대한민국 수립 163쪽)

8. 신라의 사회

정답 : ①

자료에서 등장하는 밀줄 친 ‘득난’은 6두품을 부르는 별칭이었다. 따라서 6두품이 소속되어 있는 골품제가 존재했던 신라에 대한 설명임을 알 수 있다. ① 신라는 왕과 혈연관계가 있는 인물들을 갈문왕에 봉하여 특권을 누리게 하였다.

오답분석 : ② 대성 8족에 대한 설명으로, 백제에 해당한다. ③ 정사암 회의는 백제의 귀족회의기구이다. ④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다.

(2019년 해법국사 1권 고대 국가의 신분과 사회 모습 141~143쪽)
(2018년 필기노트, 고대 신분제 사회의 성립과 사회 모습 30쪽)

9. 대한민국의 개헌과정

정답 : ③

㉠ 제1차 개헌인 발췌 개헌에 대한 설명으로, 1952년에 일어났다.
㉡ 제7차 개헌인 유신 개헌에 대한 설명으로, 1972년에 일어났다.
㉢ 전두환의 신군부 세력이 주도한 제8차 개헌에 대한 설명으로, 1980년에 일어났다. ㉣ 6월 민주 항쟁의 결과로 진행된 제9차 개헌에 대한 설명으로, 1987년에 일어났다.

(2019년 해법국사 2권 대한민국 개헌의 역사 표, 922쪽)
(2019년 필기노트, 역대 대통령 선거와 개헌 과정 169쪽)

10. 고려의 대외관계

정답 : ③

㉠ 거란의 1차 침입에 대한 설명으로, 성종 때의 사실이다.
㉡ 거란의 3차 침입에 대한 설명으로, 현종 때의 사실이다.
㉢ 윤관이 여진을 토벌하고 동북 9성을 축조한 것은 예종 때의 사실이다. ㉣ 개경 환도는 1270년 원종 때의 사실이다.

(2019년 해법국사 1권 거란의 침입과 격퇴, 219쪽 / 여진의 침입, 222쪽 / 몽골과의 전쟁, 232쪽)
(2019년 필기노트, 고려의 대외 관계 총정리, 45쪽)

11. 4·19 혁명

정답 : ②

제시된 자료는 3·15 부정 선거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4·19 혁명이 발발하였다. ② 4·19 혁명 당시 시위대가 경무대로 진격하였는데, 경찰이 무차별 총격을 가하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오답분석 : ① 민주회복국민회의는 1974년 유신 체제를 타도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이다. ③ 부마항쟁은 1979년에 일어났다. ④ ‘서울의 봄’은 신군부 타도를 내걸고 일어난 시위로, 1980년 5월에 전개되었다.

(2019년 해법국사 2권, 4·19 혁명, 904쪽 / 유신 체제의 성립과 붕괴, 914~916쪽 / 신군부의 등장과 전두환 정권 성립, 917쪽)
(2019년 필기노트, 이승만 정부, 167쪽 / 박정희 정부, 168쪽 / 신군부의 등장과 광주 민주화 운동, 170쪽)

12. 조선 숙종 대 정치 동향

정답 : ②

② 경신환국의 결과 남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집권하였는데, 이때 남인에 대한 노선을 둘러싸고 송시열을 중심으로 하는 강경파 노론과, 윤증을 중심으로 하는 온건파 소론으로 서인이 분열되었다.

오답분석 : ① 경신환국은 남인이 서인에게 정권을 빼앗긴 사건이다. ③ 갑술환국이 아니라 기사환국에 대한 설명이다. ④ 왕비 민씨(인현 왕후)는 남인 집안 출신이 아니라 서인 집안 출신이었다.

(2019년 해법국사 1권, 봉당 정치의 변질, 477~478쪽)
(2019년 필기노트, 봉당 정치의 변질 96쪽)

13. 조선시대 노비

정답 : ④

④ 외거노비들은 주인으로부터 작개지와 사경지를 받아서 경작하였는데, 작개지의 수확은 양반들이 가지고 사경지의 수확은 노비들이 소유하였다.

오답분석 : ① 조선시대의 노비들은 법적으로 구역의 부담을 지지 않았다. ② 노비가 매매·양도·상속의 대상이 된 것은 올바른 설명이지만, 노비라고 하더라도 주인이 마음대로 죽이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③ 외거노비가 솔거노비보다 숫자가 더 많았다.

(2019년 해법국사 1권, 양반 지주의 생활, 403쪽 / 신분 구조, 410쪽)
(2018년 필기노트, 양반 지주의 생활 80쪽 / 조선의 신분 제도와 신분 구조 82쪽)

14. 이이

정답 : ②

㉠은 ‘기자실기’를 저술한 이이이다. ② 이이는 ‘성학집요’를 저술하여 왕에게 바쳤으며, 처음 글을 배우는 이들을 위한 입문교재로 ‘격몽요결’을 저술하였다.

오답분석 : ① ③ 이항에 대한 설명이다. ④ 서경덕에 대한 설명이다.

(2019년 해법국사 1권, 성리학의 융성, 454~456쪽)
(2019년 필기노트, 성리학의 융성 91쪽)

15. 박지원과 정약용

정답 : ②

㉠은 ‘과농소초’를 저술한 박지원이고, ㉡은 ‘마과회통’을 저술한 정약용이다. ② 정약용은 토지의 공동 소유·공동 경작을 골자로 하는 여전론을 주장했다.

오답분석 : ① 정약용에 대한 설명이다. ③ 박제가에 대한 설명이다. ④ 윤희원에 대한 설명이다.

(2019년 해법국사 1권, 실학자들, 559~565쪽)
(2019년 필기노트, 실학의 발달 111쪽)

16. 박은식

정답 : ④

제시된 자료는 모두 박은식에 대한 설명이다. ④ 김구에 대한 설명이다.

오답분석 : ① 박은식은 ‘국혼’을 강조하면서 ‘국혼’을 잃지 않으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② 박은식은 윤세복이 세운 동창학교에 교사로 참여하였다. ③ 박은식은 1925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2019년 해법국사 2권, 임시 정부의 재정비, 781쪽 / 한국사의 연구, 846쪽)
(2019년 필기노트, 대한민국 임시정부, 147쪽 / 국내의 항일 운동, 150쪽 / 국학 운동의 전개, 158쪽)

17. 개항기 일제의 경제 침탈

정답 : ③

③ 메가타와 스티븐스는 을사조약 체결 이전인 1904년 8월에 체결한 제1차 한·일 협약에 따라 대한제국에 파견된 관리들이었다.

오답분석 : ① 메가타와 스티븐스는 대한제국의 관리로 취임했지만, 일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 인물들이다. ② 원래 경인선은 미국·경의선은 프랑스가 각각 부설권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일본이 이를 전부 인수하여 경의선·경부선·경인선을 건설하였다(경부선 부설권은 원래 일본이 보유). ④ 일본은 철도 부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한국인의 토지를 강제로 침탈했으며, 노동력 또한 강제로 동원했다. 이에 따라 한국인들은 철도 건설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하기도 하였다.

(2019년 해법국사 1권, 러일전쟁과 일제의 침략 강화, 674쪽 / 열강의 이권 침탈, 706쪽)
(2018년 필기노트, 일본의 침략과 국권피탈, 131쪽 / 열강의 경제 침탈, 135쪽)

18. 고구려-수나라 전쟁

정답 : ②

<보기>의 시는 여·수전쟁 당시에 고구려 장수 을지문덕이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낸 ‘여수장우중문시’이다. ② 을지문덕은 퇴각하는 수나라군을 살수에서 공격하여 대승을 거두었는데, 이를 살수대첩이라고 부른다.

오답분석 : ① 여·수전쟁은 영양왕 때 일어났다. ③ 여·당 전쟁에 대한 설명이다. ④ 백강 전투는 백제 멸망 이후에 전개된 백제의 부흥 운동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이다.

(2019년 해법국사 1권, 고구려와 수당전쟁~나당연합군의 결성과 백제, 고구려의 멸망, 94~96쪽)
(2019년 필기노트, 삼국의 대외관계와 삼국 통일, 23~24쪽)

19. 발해

정답 : ④

④ 성왕이 아니라 10대 왕 선왕에 대한 설명이다.

오답분석 : ① 발해의 지배층은 고구려계가 다수였고, 피지배층은 말갈계가 다수였다. ② 무왕은 당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산둥지방의 등주에 수군을 보내 선제 타격하였다. ③ 문왕은 수도를 중경에서 상경, 상경에서 동경으로 2차례 천도하였다.

(2019년 해법국사 1권, 발해의 건국과 발전, 106~108쪽)
(2019년 필기노트, 발해의 건국과 발전, 25쪽)

20. 공민왕

정답 : ④

제시된 자료에서 등장하는 2차 홍건적의 난은 공민왕의 재위기간에 일어난 사건이다. ④ 창왕 때 일어난 사건이다.

오답분석 : ① 공민왕은 말년에 자제위를 설치하여 국왕의 시중을 들도록 하였다. ② 공민왕은 신돈을 등용하고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권문세족의 경제 기반을 억누르고자 하였다. ③ 공민왕은 원과 고려의 연락 기능을 담당하던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다.

(2019 해법국사 1권, 공민왕의 개혁 정치, 238쪽 /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 240쪽)
(2019년 필기노트, 고려 후기 정치 변동, 51쪽)